

일주문



중국 대산 등 성지순례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8월 9~14일 중국 대산 등 성지순례를 떠난다. (031)239-9391



관음사 등 국내 성지순례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0월 10~11일 제주 관음사 등 성지순례를 병행한다. (02)732-2187



6·25전쟁 위령제 포천 흥룡사 주지 해문 스님(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은 7월 27일 '6·25 전쟁 피해자 위령제'를 지냈다.



사찰음식 특강 마련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산사음식 여름학기 특강'을 개최한다.



하계 교직원 연수 김희옥 불교교육연합회 회장(동국대 총장)은 8월 2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46차 하계 교직원 연수를 개최한다. (02)2260-3835



동산불교대 무상교육 이상우 동산불교대 이사장은 8월 11일 개강하는 동산불교대 41기에서 군 불교 종사자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동국대 경영대학 세계와 어깨 나란히 AACSB 국제 인증 획득, 전 세계 경영대학 중 5%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7월 25일, 세계적인 경영교육 인증기관인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International, AACSB)로부터 경영교육 국제인증 획득했다. 동국대는 2008년부터 4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실사평가팀(Peer Review Team) 현장방문 실사 후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인증으로 동국대는 학부(Undergraduate), 석사(MBA & MS), 박사(PhD) 과정 등 경영학 학위 전 과정에 대한 교육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AACSB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비영리 인증기관으로서 현재 전 세계 경영학 교육프로그램의 약 5%만이 이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AIST,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학교가 인증 받았다.

노덕현 기자

“불자 스스로 성찰 기회 가져야”

‘불교바르게살기운동’ 추진하는 ‘아름다운 나라의 기둥’ 김용숙 대표

“부처님은 법(法)과 나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수행자가 지녀야 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불자의 길일까. 최근 조계종단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불자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불자들은 이제 불교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김용숙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대표(사진)는 “모든 불자가 먼저 크게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6일 자성교와선결사 추진본부가 개최한 야단법석 자리에서도 이 같이 발언했다. 당시 김 대표는 참회문 낭독에서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과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며 “그동안 불자들이 지나치게 스님들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매 순간 의식이 깨어있는 생활 불교인이 되어야 한다”며 “불교를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불교바르게살기 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김 대표는 “불자 중 90%는 여성들이다. 대부분 여성 불자들의 신생활은 남편, 자녀를 위한 기복신앙에만 집중돼 있다. 현재 불교가 혼란스러운 것도 불자들이 복을 빌기 위해 스님과 절에 너무 많은 보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불자 스스로가 성찰의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이런 운동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불자들이 스님과의 주종관계가 아닌 주체성을 갖고 종교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대표는 ‘불교바르게살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종교가 사회를 지탱하는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종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부처님의 ‘나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가르침처럼, 불자로서 나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나만을 위한 복을 빌기보다 스님들에게 지나친 보시를 삼가해야 한다. 그래야 종단과 스님들은 타락의 늪으로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불교바르게살기 운동’은 스님이나 종단을 비판하기 이전에 불자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이를 먼저 참회하고 바른 불교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라며 “아직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단계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신생활을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바르게살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많은 여성 불자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용숙 대표는 지난 14년 간 ‘아름다운 나라의 기둥’을 이끌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지난 해부터 KBS 아침마당 고정 패널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21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발표

학술 - 안성두 서울대 교수 예술 - 최영철 찬불 작곡가

제 21회 행원문화상 학술 분야에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예술 분야는 작곡가 최영철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 21회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7월 25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확정했다. 학술상 수상자 안성두 교수는 <보성론> 번역의 치밀한 연구 등 학술적 기여가 크게 인정받았다. 안 교수는 독일에서 인도 유식학을 중심으로 인도불교를 전공한 후 2001년 귀국해 인도불교철학을 연구했다. 이후 서울대 철학과에서 인도불교 철학을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인문학 HK’ 지원사업에 금감대 책임연구자로 활동했다. 예술상 수상자 최영철 씨는 창작 찬불가 중 ‘사홍서원’ ‘삼귀의’ 등 40여 년을 찬불가와 함께 한 원로 불교음악인이다. 최 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0여 곡에 달하는 찬불가를 작곡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불교 음악을 이끌어 오고 있다. 학술상,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9월 24일 여삼동 대려도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안성두 교수 최영철 작곡가

“죽음은 구름같이 사라지는 것”

월드잉본부 7월 특강 수필가 맹난자 선생 강연

월빙 못지않게 월드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불교여성개발원 월드잉본부는 7월 25일 템플스테이관 문수실에서 ‘월드잉 7월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수필가 맹난자 씨(사진)가 강연자로 나서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를 주제로 세계작가들의 삶과 고통을 통해 죽음을 바로보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난자 씨는 “세계 유명 작가들의 죽음은 불교적 사유와 관계가 깊다”며 “그들의 죽음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맹 씨는 “괴테의 <파우스트>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멸(生滅)과 적멸(寂滅)이 담겨있다. 또 톨스토이는 죽기 전 집을 나와 ‘내 마지막 날 고독과 평화 속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헤르만 헤세는 <형제의 죽음>에서 ‘오라, 사랑하는 죽음아, 나는 여기에 있다. 와서 나를 잡아라. 나는 너의 것이다’라고 자신의 죽음관을 밝혔으며, 헤밍웨이 역시 <노인과 바다>를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합일의 경지를 표현했다. 맹 씨는 “공통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가 둘이 아님을 논하며,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죽음은 구름이 일었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죽음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죽을 내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이은정 기자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국민훈장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이 7월 25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도용 스님은 이날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김석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달받았다. 천태종은 도용 스님이 불교 정신 문화 선도, 애국애족·평화통일 의식 고취, 사회복지·문화예술 후원 등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용 스님은 천태종립 금강대를 설립,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발전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천태종복지재단을 설립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에 진력했다. 또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 및 성지순례 사업 등 남북교류 사업과 나누며나들이운동 본부를 통해 평화적 남북통일 기반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도용 스님은 “국민화합과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소외계층 지원, 사회문화활동, 인권·생명운동 등에 관심을 쏟겠다”면서 “국가발전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원력을 세워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합선교종 창종선포 대법회

불교 통합선교종 창종 선포 시: 불기 2556(2012)년 7월 24일(음력 6월6일) 화 오전11시 경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총무원장 화엄)은 7월 24일 천안 총무원 강당에서 창종선포 대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 헌관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1세 종정 정각 스님, 원로의원 도기 스님, 총무원장 화엄 스님, 일불종양문도회 회장 의륜 스님, 중앙총회의장 삼주 스님, 용성문도회 회장 가산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각 종단 지도자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화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1세 종정인 정각 스님을 받들어 화엄과 원우무애 정신으로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중추종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세 종정 정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봉정만의 큰 꿈을 품고 세계평화와 불교종흥의 첫 마음을 새겨 변함없이 정진해 가지”고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총무부장 광은 스님은 열린종단, 교육종단, 개혁 혁신종단의 3대 지표와 일불사상연구소 설립을 통한 종단 기본사상 확립, 일불종자 탄신 100주년 기념 사업회 발족, 일불 문학상 제정, 군소종단 상호간 업무협약서 체결, 통합 강원 운영과 수행이력 상호승인, 합동대법장 설치, 종단발전 전략기획실 설치, 여론수렴 제도화, 5부 대중으로 편제 개편의 10대 실천 사업을 발표했다. (041)566-2277 노덕현 기자

Advertisement for 'Buddha Book' (붓다북) featuring various Buddhist books, audio CDs, and a screenshot of the website. The website shows a search bar and various book listings. The text 'Click!! 인터넷 검색창에 붓다북!' is prominent.